

이번에는 8강 들어가도록 합니다.

문장 성분이고요.

이번에는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문장 성분은 우리 나눌 때 어로 끝나는 그런 놈들이죠?

그래서 단어보다는 큰 단위로 주성분이 있고.

주성분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중심이 되어주는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목적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어, 아직까지 보어를 되다, 아니다로 생각하는 친구들 없겠죠?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나왔을 때 주어 말고 보충해주는.

중간에 있는 성분들.

그게 바로 보어죠.

그리고 서술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주성분 이야기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상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문장성분 문제 다 서술어 문제나 다름이 없어요.

문장을 결정짓는 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

뒤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항상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

관형어나 부사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형어나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는

일단 관형사가 전부 다 부사.

관형사는 관형어.

부사는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를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체언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깔끔하죠.

우리 의,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부사어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

문제는 선생님이 조사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잖아요.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사격 조사 양이 많으니까

꼭 외워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부사어인지 알지.

세 번째, 용언의 활용형.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은, 는, 을, 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으 같은 경우는 매개모음 빠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유형이 있다는 거죠.

용언 어간에 부사형 전성어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따 문제 풀면서도 더 이야기하겠지만 게, 도록이 좀 많은 편이지만

이거 말고 더 많아요, 실상.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3개는 워낙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탕을 꾸몄다, 라고 하면 새 사탕, 관형사 쓰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사탕 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맛있는 사탕 이러면 이거 쓰는 거죠.

그다음에 부사어.

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빨리 뛰다 이러면 이거 쓰는 거죠.

그다음에 집으로 뛰다, 학교에서 뛰다.

그러면 이렇게 으로나, 에서.

이런 부사격 조사 사용해서 부사어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 죽도록 뛰다, 토나오게 뛰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게나 도록을 썼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뛰다 앞에 수식해주는 모든 거 부사어,

아까 전에 사탕 앞에 수식해주는 모두 관형어로 처리가 되는 구성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생략한 구성.

이따 문제로 볼 거예요.

그래서 꼭 의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맥락상 의를 안 넣는 게 더 어울릴 때가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의 옷.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치원 옷,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치원이 의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 있는 옷을 꾸며주는 관형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구조고.

또 부사어의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부사성을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만큼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하다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사어의 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 이거 세 가지는.

이 둘의 구조가 유사하니까 꼭 외워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독립성분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수 성분이라는 걸 따질 때가 있단 말이야.

문장 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서술어는 이 안에 낀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죠?

어떨 때 이 부사어가 필수 성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수적 부사어.

선생님, 필수적 부사어는 어떻게 찾나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세 자리일 경우

또는 두 자리일 경우에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한 거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어가는 1번 문제.

1학년 문제라서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틀리는 친구들 뭐야 도대체?

정답 1번이죠.

철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놈은 서술어가 되는 건데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주어가 애지 애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되었느냐, 라고 한다면 그 된 주체는 철수고요.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밑줄 친 부분이 주어가 아닌 보어가 되는 거고요.

ㄴ에 밑줄 친 부분은 부사어, 라고 했는데

이 부사어에 몇 번째 해당합니까?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왜? 이 초롱초롱이라고 하는 건 의성부사, 의태부사.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사.

ㄷ, 아기가 물을 엮질렀구나, 라고 했을 때

엮지르다 서술어에 지금 아기가 주어,

물을 목적어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은 맞는 거고요.

다음 4번에 ㄱ하고 ㄷ 전부 다 주성분.

왜요? ㄱ은 보어, 그다음에 ㄷ은 목적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5번에 나와 있는 ㄴ, 초롱초롱은 없어도 그만이죠.

그냥 빛난다 해도 되지만 앞에 수식해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때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 그냥 부사어, 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보기에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의 일부.

A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두 개를 적어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문장의 짜임새 하면서는

안은 문장, 안긴 문장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끊어서 좀 쓰고 정리해서 설명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짧은 건 그냥 쓸게요, 지금.

ㄱ에 보게 되면 꼼꼼한 소윤이가 가위로 색종이를 잘랐다.

문장 성분 한번 따져보세요.

서술어 뭐니까?

잘랐다.

앞에는요? 목적어.

누가 잘랐어요? 소윤이가 잘랐어요, 주어로.

그러면 이거는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는 몇 자리?

누가, 무엇을 잘랐다.

두 자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불필요해.

꼼꼼한은 소윤이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에 해당하죠.

다음에 가위로는 색종이를 꾸며주고 있는, 가위로 잘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애는 필수적 부사어는 아니고

역시나 관형어는 아예 필수적일 리가 없죠.

ㄴ 갑니다.

경민이는 옆집의 효빈이를 동생으로 삼았다.

서술어 삼았다.

이때는 주어가 누가 삼았죠?

경민이가 삼았어요.

누구를요? 효빈이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

삼다, 라는 세 자릿수가 필요해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무엇으로는 부사어인데

이 부사어는 애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놈이 바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에 필요 없는 놈은 이놈이죠.

옆집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애는 효빈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정답은 5번이 확인됩니다.

ㄱ에 가위로와,

그다음에 ㄴ에 동생으로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5번 잘못됐죠?

3번 문제 갑니다.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번, ㄱ에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맞죠?

철수의 동생이가 주어니까 이 주어의 행위가 바로 풀었다예요.

2번입니다.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로하므로 주성분이다.

ㄴ 문장에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에서 올해가 꼭 필요하나,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다 해도 충분하죠.

따라서 2번 주성분이 아닌 수식해주는 부속성분에 불과하고 없어도 돼요.

3번에 목적어는 사진을, ㄴ에 목적어는 없어요.

4번에 주어 하나씩이죠.

동생이와 언니는이 주어입니다.

5번에 ㄱ과 ㄴ에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가지씩 있다고 했는데

ㄱ에는 주성분 동생이 주어, 사진을 목적어, 찍었다 서술어.

ㄴ의 경우에는 언니는 주어, 대학생이 보어, 되었다 서술어.

이렇게 필요한 거 맞죠?

이제 그다음 갑니다.

4번 주목.

4번 문제인데 여기서 드디어 2017년 시험에서 구 이야기를 언급해요.

지금까지 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개념이 원래 우리가 품사, 단어죠?

단어는 품사 단위인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큰 개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절 단위로 사실 문장 성분을 따질 수 있는데

문장 성분은 하나의 어절이

문장 성분 하나를 갖는다, 라고 꼭 판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개념이 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절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절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문장의 짜임새를 따지게 되면

안은 문장, 안긴 문장 이야기할 때

명사절이니 무슨 절이니 서술절이니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개념은 언급을 잘 안 해요.

왜? 구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좀 이견이 없을 만한

확실한 부분만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보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두 개 이상이 묶여서,

그러면 띄어쓰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개가 하나의 문장 성분 기능을 갖게 될 거예요, 묶어서.

같이 처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1번 먼저 가볼게요.

ㄱ과 ㄴ의 주어는 명사구의 조사가 붙은 상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가볼게요.

ㄱ에 주어 뭐죠?

서술어부터 찾으라니까.

ㄱ에 끝냈다가 서술어죠.

누가 끝냈죠? 나도 끝냈다.

여기 주어 지금 나밖에 없어요.

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지죠?

따라서 1번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명사 구가 없어요.

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둡다의 주어 뭐죠? 바깥이죠.

역시나 단독 주어예요.

그러면 애도 구가 아니예요.

1번 틀려요.

2번 갑니다.

ㄱ과 ㄷ에서 격조사는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했는데

ㄱ에 주어가 나도,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내가에 가가 올 자리에 도라고 하는 보조사가 온 거죠?

격조사 없습니다.

ㄷ도 신임 장관은 이게 주어인데

신임 장관이가 되었어야죠, 격조사가 되려면.

그런데 은, 는 이런 건 대표적인 보조사예요.

조사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어요, 이 문제.

3번 갑니다.

ㄴ과 ㄷ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3번 얼핏 맞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없으면.

물어봅니다.

ㄷ은 행위가 서술어가 뭐예요? 참석하다.

참석하다는 품사로는 뭐가 됩니까? 동사.

그래서 여기도 지금 참석한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임 장관은이라고 하는

이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임 장관이 참석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ㄴ에 어둡다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예요.

동작이 아예 없어요.

즉 상태의 주체가 바깥이잖아요.

3번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어네, 주체네.

동작이 아니라고요.

즉 서술어의 특성, 동사나 형용사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ㄷ과 ㄹ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라고 했어요.

ㄷ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ㄷ, 신임 장관은 참석했대요.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대요.

보시면 지금 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놈이 바로 이놈이에요.

그런데 어절 단위로 만약에 끊어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죠?

신임이나 새의 역할은 뭐냐, 사실 관형어.

장관인데 어떤 장관? 새로운 장관이요.

신임 장관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애를 놓고 보면 이 어절이 장관을 꾸며주고 있고

새는 관형사잖아요, 아예 품사도 관형사야.

그러면 새가 뭘 꾸며줘?

컴퓨터를 꾸며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신임 장관, 새 컴퓨터 해서
애네들의 문장 성분을 따져보게 되면 관형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에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라는 말을 써요.
체언 구실 하는 구에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만들어졌다.
이거 보면 크게 고물이 되었다인데
참석한다의 주어가 결국 신임 장관이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신임 장관이 참석하는 거잖아.
어떤 컴퓨터? 새 컴퓨터가 보물 된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애를 이렇게 만약에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 개념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단어 두 개 이상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 개념을 따질 때는 관형어나 부사어가 필수가 아니라면.
관형어나 부사어나 이런 것들은 수식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수식 받는 대상이랑 묶어 처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임 장관.
구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지금 어쨌든 두 개의 단어인데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묶여서 주어, 묶여서 주어.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구개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5번 답지에 보게 되면
르에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그러면 오해하는 거지.
고물이자 주어구나, 아니.

새 컴퓨터가 고물이 되었다 할 때

고물이는 뭐다? 주어가 아닌 보어죠.

그러니까 주어는 한 번만.

새 컴퓨터가 한 번만 쓰인 겁니다.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합니다.

1번, ㄱ과 ㄴ을 보면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ㄱ에는 새가, 주격 조사 있지만

ㄴ에 보면 우리, 뒤에 없죠?

우리 지금부터 조용히 하자, 라고 했는데

우리 뒤에 우리가, 이런 거 없어요, 주격조사.

생략된 거죠.

다음 2번, ㄱ과 ㄴ을 보게 되면 주격 조사의 형태는

앞말과 관계가 없다.

왜 없냐, 있죠.

ㄱ에는 새가, ㄴ은 우리반이.

왜 이나 가 두 개가 필요했다?

앞에 받침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형태 관계인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상황에 따라 주어가 생략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ㄱ에는 주어가 있었지만, ㄴ에는 아마도 이런 담화 상황에서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라고 하면

상대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너는, 이거 빠진 거죠?

다음 4번에 주어의 위치 이동은 지금 ㄴ을 두고 볼 수 있어요.

영희는 어디 갔니 했어야 될 걸 어디 갔니 영희는?

하고 주어를 뒤로 보냈다는 겁니다.

5번, ㄴ과 ㄴ을 보게 되면

주어는 한 단어뿐만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다.

ㄷ의 경우에는 주어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단어가 주어가 되는 건데

ㄹ의 경우에는 우리반이 승리했음 괄호.

이거 뭐예요? 명사절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에 대한 탐구 내용.

1번에 보게 되면 이거는 지식적으로 맞아요.

어느 재료를 써도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구성일 때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주어입니다.

2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격 조사 왜 달라지죠?

이랑 가.

그리고 께서, 에서 이 네 가지인데

께서는 특수성이 있죠.

높임의 주어.

그다음에 에서는 단체 주어.

이, 가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서술어의 자릿수 때문에

주격 조사 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절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ㄷ에 다섯은 계를 꾸며주는 관형사이니까

동전 다섯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가 포함되어있어야 절이죠.

동전 다섯은 명사와 수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이 구성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번이 바로 이 구성이죠?

지금 이렇게 봤고 하나가 더 들어간 게

2번에 보면 체언 단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지금 빠질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같은 유형을 골라보자는 겁니다.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의 대신에 이거 빠져있는 거니까

애는 지금 이 보기 1에 해당하는 건 2번에 해당하죠.

또 오랜만에 만난.

그러면 만남은 만나다의 활용형이죠.

만나 더하기 ㄴ으로 만남.

그러면 애는 4번에 해당하겠군요.

다음 옛이야기.

옛은 아예 품사 자체가 뭐다?

관형사.

D, 때의, 라고 하는 건 때 더하기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였죠.

온갖, 관형사.

그러면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관형사 두 개 나와 있네요.

C하고 E.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가보도록 하죠.

수업 시간에 부사어에 대해 탐구 학습을 했다.

아래와 같은 탐구 과정을 거쳤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매우는 지금 출다를 꾸며주는 거 맞죠.

지금 성분을 꾸며주고 있는 성분 부사입니다.

다음 ㄴ에 다행이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답지가 사실 그 뒤에 문제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행이는 문장에 어느 위치에서든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무조건이 되어버리잖아요.

부사가 관형사보다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요.

동시에 문장 성분으로 따져봐도 부사어가 관형어보다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위치 이동이 좀 자유롭다는 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번 넣어봅시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가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자연스럽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쉽표, 다행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다친 다행히 사람은 없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답지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위치에서든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거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부사의 이동이 좀 자유롭다는 건 맞는데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뭐냐, 부정 부사에요.

안 먹다, 못 먹다와 같이 이 먹다를 부정해줄 수 있는 부사가

위치가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설명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고요.

4번에 바로, 바로는 부사이지만 지금 이 문장에 쓰이는 것처럼 바로 너야.

내가 찾은 사람이 바로 너야 한다면

이때의 바로는 뭘 꾸며주고 있다?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오는 단어를 강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ㄹ에 사뿐사뿐은 의태어죠?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내었다.

10번 문제 봅시다.

10번은 문제가 안 좋아요.

안 좋은 문제를 왜 골랐습니까?

안 좋은데 안 좋다고 해도 답은 골라내야 된다.

그러면 왜 애 답을 여러분이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를 주면.

여러분, 10번 문제처럼 주면 문두는 우리가 이렇게 읽겠죠.

보기에 예를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

그러면 일단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

1번부터 5번까지 다 부사어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

다 맞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계속 뒷부분을 열심히 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낸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수능형 문제는 아니에요.

2학년 학력 평가였기 때문에 수능형이었으면 이런 구성으로 출제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뒤쪽 설명에 문제가 없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처음에 잡아주고 있었던 부사어가 아니라면, 이거예요.

1번이에요.

엄마와 그녀는 닮았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결되기도 하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와나 과나 하고나 랑이나

이런 놈들은 접속 조사 기능도 가지고 있고

동반의 부사격 조사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엄마 A, 그녀 B, 사이에 끼어있는 이놈은 접속조사.

그녀 A, 엄마 B, 답았는데 두 대상 바깥에 빠져있는 이놈을 뭐라고 한다?

부사격 조사.

그러면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여기 지금 서술어로 나와 있는 답았다가

자릿수가 잡혀 있는데 애는 지금 자릿수가 원래는 두 자리에요.

누구는 답았다, 안 되죠?

누구는 누구와가 필요합니다.

즉 애처럼 주어가 필요하고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릿수의 서술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서술어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복수일 때는 하나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답았다, 형제들이 답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의 주어로 나오면

이때는 주어 한 자리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애는 지금 이 서술어가 주어로 뭘 쓰고 있냐면,

엄마와 그녀를 묶어 잡아요.

접속 조사는 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는 주격 조사 가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사로 눈이 온 것뿐이기 때문에

애가 전체가 다 주어로 처리가 되는 거죠.

부사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에 ㄱ을 보니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아예 없다니깐요, 여기는.

애가 부사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장을 애를 뺐다면 1번 설명이 맞아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애를 생략할 수가 없겠군.

예, 못해요.

왜? 애는 자릿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1번은 예문 자체가 아예 이게 나왔기 때문에
부사어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없는 걸 주고 부사어에 대한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건
지저분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걸 줬던 건 항상 경각심.

여러분이 꼭 수능 문제만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에서도 또 이런 구성으로 출제하는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ㄱ의 예로 짝지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필수적 부사어만 골라보면 돼.

필수적 부사어.

1번부터 가봅시다.

서술어가 뭐예요?

보다.

나는 영화를 보았다 해도 되죠.

삼촌과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러면 애는 땡.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비슷하다.

어제 본 것이 비슷하다, 어때요? 안 되죠.

어제 본 것이 무엇과가 필요해.

이 자리에 이것과 필요했어요.

애는 필수적 부사어 맞아.

그러나 1번은 어쨌든 두 개가 다 필수적 부사어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 게 안 되니까 틀려요.

2번 갑니다.

이탈했다.

인공위성이 이탈했다.

됩니까?

이탈하는데 어디에서 이탈하는지 나와야지.

그래서 이건 필수적 부사어 궤도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필수적 부사어 아니에요.

3번 갑니다.

그들은 멧돼지를 잡았다.

되죠.

꼭 몽둥이로가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 부사어 없습니다.

그다음 왕은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왕은 기사를 삼았다.

누구로 삼았냐고, 사위로.

이런 거 필요하죠. 부사어 필요해요.

3번도 위에 건 안 되고 밑에 건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4번, 기후는 적합하다.

뭐에 적합하냐고, 밑에 나오죠? 벼농사에.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오후에.

오후에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 부사어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죠.

선생님께서서는 선행상을 주셨다 하면 궁금한 건 누구에게인데

그 누구에게 자리에 지혜에게 나옵니다.

홍길동 씨는 5만 원을 빌렸다.

누구한테 빌렸는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친구에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네들이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잘 안 내요.

기출을 통해 익숙해진 상태예요,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판단이.

12번과 같이 출제가 됩니다.

2018년 수능에 나왔던 부사어에 대한 탐구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절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볼까요?

1번에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었다.

이때 절이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계 이야기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잖아요.

나왔으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죠?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사실 서술어는 날이다.

주어가 될까요?

여러분 꼭 문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술어부터 잡는 게 중요하단니까?

하늘이 날이다? 아니잖아요.

오늘은.

생략 주어예요.

서술어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서술어는 안 빠져도 주어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서술어, 이게 주어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장이예요.

하늘이 눈이 부시다가 이건데 이것도 주어죠?

하늘이 어떠하다, 이게 서술어죠?

그런데 눈이 주어고 부시다가 또 서술어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늘이 눈이 부시다가 여기가 이렇게 또 안겨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눈이 부시다 하면 이게 서술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은 문장이

이게 또 하늘이 눈이 부시다가 아니라 눈이 부시게로 바뀌고

뭘 꾸며주고 있죠?

푸르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푸르다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무슨 절이죠? 부사절.

거기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절.

현재는 관형어지만 애도 서술어였던 놈이니까.

엄청 이거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아내래요?

눈이 부시게만.

어차피 집어놓은 건 이거야.

이게 부사어로 쓰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뭐하다?

푸르다, 라는 형태. 용언을 꾸며주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르다인데.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은 날이다, 라는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눈이 부시다, 서술어가 된 하늘이 눈이 부시다.

부사어가 된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르다.

관형어가 된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복잡한 문장입니다.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2번 갑니다.

함박눈이 하늘에서 ping ping 내리고 있다.

하늘에서 부사어죠?

ping ping도 부사어죠.

하늘에서는 이거 쓴 거고 ping ping은 이거 쓴 거죠.

3번 갑니다.

너무 험 차 한 대를 샀다.

이건 쉬워, 답은 잘 나온다.

왜?

너무가 뭘 꾸며주고 있어요? 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너무가 사다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이때의 영희는 닮았다 할 수 없는 건

이때 엄마와가 필수적 부사어이기 때문이고

다음 ㄴ에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에서의

이때의 취미로는 없어도 되는 그냥 부사어다, 라고 본 거죠?

다음 5번에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모든 것은 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되다랑 아니다가 보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어가 필수예요.

보어가 무조건 나오지만 지금 이 되다의 경우에는

5번 답지 나와 있는 것처럼 애가 보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로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는 둘 중 하나로 처리하셔야 돼요, 되다는.

그래서 5번 답지를 보게 되면 만약에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이러면 이때의 재로는 부사어가 들어간 거고

모든 것은 재가 되었다 이러면 이때는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다가 보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죠.

목적어에 대한 탐구입니다.

1번, 사실은 봅시다.

서술어 문제가 가장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죠.

서술어 자릿수 같은 거 내면서.

그다음 관형어나 부사어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주어, 목적어, 이런 거 문제는 어떻게 내려고 하나.

이렇게 내는 거죠.

조사를 이용합니다.

즉 주어나 목적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사들이 있는데

그 조사가 이, 가, 께서, 에서 또는 을, 를.

그게 그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조사가 빠진다면지 아니면 보조사들로 대체됩니다.

격조사 자리에 온 보조사들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

이럴 때도 답은 이거예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에 목적어가 있다면

이 목적어처럼 시늉하지 않는

이 조사가 원래는 목적격 조사를 대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가볼게요.

어쨌든 지금 ㄱ과 ㄷ이 동작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떡다 동작이죠? ㄱ.

ㄷ에 보다 동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어로 빵을이 나오고 ㄷ에 모습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빵, 먹을 빵.

그다음에 볼 모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설명 맞고 다음 2번에 목적어 자리가 고정적이진 않다고 했는데

ㄱ은 나는 빵을 먹었다니까 주어 뒤에 곧바로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ㄷ의 경우에는 보는 주체는 어머니께서거든요.

그런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다, 라고 했으니

목적어와 주어의 위치가 좀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2번 설명 맞죠?

3번, ㄱ과 ㄴ을 비교하면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ㄱ에 빵을이 목적어죠?

ㄴ 봅니다.

우유나 마실까의 목적어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게 문제예요.

이런 거에 실수를 유발할 거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왜 없어.

애가 목적어지.

이거를 꼭 찾아내라는 이야기에요.

왜냐, 마시다가 서술어죠.

주어는 지금 대화니까 우리, 이런 거 생략돼 있겠죠.

주어 지금 생략.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죠.

그러면 뭐니까? 우유를 마실까요요.

원래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될 자리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격 조사나 주격 조사 자리 대신에 뭐 넣어요?

보조사 넣어요.

보조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사가 왔을 때 여러분이 이거 목적어 아니야.

큰 실수, 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는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는 거.

이 나를 목적격 조사로 대체해서 있어, 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4번에 보게 되면 ㄱ과 ㄴ을 보면

목적어가 필요없는 문장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ㄴ의 경우에는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곱다, 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는 무엇이 곱다.

자릿수가 주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맞죠.

5번 답지 을, 를의 판단.

자음, 모음 뒤 해서 각각 이형태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14번 문제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다르다는 무었은 무었과 다르다.

두 자리가 필요한 거였어요.

15번 갑니다.

ㄱ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거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문장 성분이 빠져있는 걸 고르라는 이야기죠?

정답은 1번.

내 친구 영수는 얼굴이 닳았다.

그러면 누구와 닳았는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실었냐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뒤쪽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닌 걸 골라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다양하지만

문장 성분에 호응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렇게 1번처럼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외에, 2번의 경우에는 뭐의 문제냐.

사실 애는 비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고, 있 구조가 됐을 때 이게 중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라고 하면

신은 상태인지 아니면 신는 중인지.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은요?

기상청에서는 눈이 내릴 거라고 미리 예고했다.

애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뭔지 알겠습니까?

어휘 중복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미리 예고.

그러니까 미리라는 고유어랑 예고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사실은 의미가 중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고했다, 라고 해도 되고

미리 알렸다 해도 되잖아요.

다음 4번, 이건 또 뭐를 문제 삼으려고 할까요?

비문은 아니에요.

잘못된 문장은 아니지만 역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수식해주고 있는 소중한이 고객님의 꾸미는 건지

의견을 꾸미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중한 고객님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렇게 됐을 때 관형어의 수식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5번은 뭐의 문제일까.

이거는 눈에 뜨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문이거든요.

부사어가 절대로죠?

그런데 이 절대로 하고 문장 부사가 서술어 부분하고 호응이 안 맞아요.

그는 절대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에 하고야 말았다.

안 되겠죠?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부정어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이 15번의 경우에는 빠진 문장 성분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1번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갑니다.

16번, 자릿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16번에 정답은 5번이 답이었고요.

닭았다의 경우는 지금 아버지와가 필요하죠.

상호는 아버지와 닭았다.

지금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주다라든지 아니면 삼다라든지 닭다라든지

이런 자릿수가 두 개, 세 개로 조금 확장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문제를 많이 줘요, 보면.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답지 ㄱ, ㄴ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필수적인 건 주어랑 서술어야.

문장 봅시다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서술어 뭐예요? 잔다.

주어는 아이가.

다 필요 없어, 나머지.

작은 관형어, 침대에서 부사어, 예쁘게 부사어 싹 다 필요 없어.

2번 답지 갑니다.

ㄴ에서 필수 문장 성분이 4개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필요하죠, 먹는다.

주어 필요하겠네요, 학생들이.

목적어 필요합니다, 점심을.

이거까지.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다 하면 깔끔해.

식당에서는 부사어인데 애는 필수적이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ㄷ의 경우에는 그 아이는 생겼다 이러면 안 돼.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예쁘게와 같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자리 잡죠?

4번 갑니다.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ㄹ처럼 필수적인 것도 있어.

이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이 4번 답지도 챙겨주세요.

원래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부사어처럼 필수적 관형어.

이런 용어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 4번에 이런 높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의존명사 앞에 있을 때.

지금 ㄹ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할 때 이때의 작은은 것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는 관형어 수식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문장에서는 이 작은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법 용어로는 필수적 관형어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4번도 이런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시요.

의존 명사 앞이라면 관형어가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하셔야 돼요.

5번 답지, ㄹ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

문장 읽어볼까요?

우리도 언제 개통할지 모른다.

뭐가 없죠? 무엇을 개통할지.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필요한 목적어가.

미안해요.

지금 잘못 이야기했죠.

개통할지가 아니죠, 개통될지로 갔죠.

그러면 주어가 필요하죠.

무엇이 개통될지.

지금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개통하다와 개통되다.

접미사 하다를 되다로 바꿨는데

갑자기 필요한 문장 구문이 달라지는 거죠?

애는 무엇을 개통하는 거죠.

애는 무엇이 개통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애는 지금 주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한 활동.

되게 길게 문제는 갔다 왔는데 사실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중간 탐구 활동 탐구 결과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 언제 읽고 있냐고.

그래서 곧바로 탐구 자료 **A**와 탐구 자료 **B**만 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잡다.

5번 **B**에서 철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에서의 많이는 생략.

왜 안 됩니까.

철수가 물고기를 잡았다 해도 충분하죠?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수능 문제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기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니까 그 성분을 보충해줘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에 수정한 문장까지 같이 줬죠?

1번의 경우에는 뭐가 지금 추가됐어요?

정부에가 추가됐습니다.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요청했는지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3번의 경우에도 내 친구를 소개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소개할지가 안 나와 있어서 누나에게가 끼어 들어왔죠.

4번의 경우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무엇을 삼아야 되는지가 안 나왔었는데 목적어 그 일들이 나왔어요.

5번에 보면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뒤에 어두운지가 필요했죠, 부사어.

그래서 동네 지리에가 추가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의 경우에는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장을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바꾼 건 좋았는데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있던 걸 채워준 건 아니에요.

뭐냐하면, 서술어.

지금 문제는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알려주려고 하는 이 첫 서두 부분을

서술어랑 호응을 맞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구조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거를 맞게끔 자연스럽게 바꿔준 거지

이건 문장 성분에 추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20번 문제에 별표를 좀 치시고 이 문제는 정말 소중한 문제예요.

뭘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전정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을 좀 보셔야 돼요.

사전을 표준 국어 대사전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예를 들어먹다, 라는 사전에 이 단어를 찾았어요.

표제어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주어집니까?

품사 정보가 주어지죠.

그래서 애는 동사,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이런 게 덧붙어요.

그 전에 뭐 나오냐면, 활용 정보라든지 아니면 발음 정보 같은 것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 표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자릿수 이야기예요.

즉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자릿수가 필요할 텐데

형용사는 사실 저기에 들어갈 이유 없어.

왜? 형용사는 무조건 한 자리니까.

주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두 자릿수도 있고 세 자릿수도 있고 좀 다양해지거든요.

또 한 단어라 할지라도 그게 다의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릿수가 하나인데 어떨 때는 두 개로 가버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알다.

애는 자릿수가 몇 자리다?

두 자리일 수도 있고 세 자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의 비밀을 안다.

그녀는 나를 애완동물로 안다.

이렇게 문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안다는 나는 주어, 비밀 목적어.

끝나요.

나는 비밀을 안다, 나는 무엇을 안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뭐로 알고 있는지, 뭐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알다, 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표제어는 동일한 표제어인데

이게 동음이의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설명해줄 때는 목적격 조사 을만 제시해주다가

이거에 대한 뜻으로 가게 되면 ~를 ~로가 나오게 돼요.

선생님, 주어는 왜 이야기 안 해요?

무조건 들어가니까.

주어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에요.

되다에 밑줄이 쳐져 있죠?

첫 번째 문장,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있다에서 필요한 거.

이 나라는 무엇으로 되어있다가 필요하죠.

그러면 주어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무엇으로에서의 으로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이다.

그러면 이진 지갑이 가족으로 되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갑이 가족으로 되어있다인데

이 되다에 필요한 게 지갑이라는 주어 말고 뭐가 필요했어?

가족으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답은 1번이에요.

2번부터 5번까지 수정해보세요.

틀린 거니까, 틀렸다는 걸 알고 수정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수정해보세요.

다 하셨습니까?

2번 가볼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게가 아니야.

첫 번째 문장,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뭐가 필요합니까?

모두 무엇에 넘어갔다가 필요하죠.

제가 아니에요.

무엇에 넘어갔다, 예가 필요해요.

밑에도 제 피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풀이다.

자기가 제 피에 넘어가다죠.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제 피에.

예가 필요합니다.

다음, 3번은 뭐로 바꿨어요?

얼핏 보면 옷 때문에, 한 밤중에.

그러니까 예인가 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서술어가 뭐예요?

다투다.

첫 번째 문장에 다투다.

나는 언니와 다투다죠.

옷 때문에는 쓸데없어요, 없어도 돼.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는 한밤중에는 쓸모없어.

그는 다뤘다.

시간이 중요하냐고요, 아니라니까.

그는 언제 다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누구와 다뤘다가 중요하죠.

즉 밑에 있는 문장에도 누군가와에서의 와.

즉 3번은 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와가 정보로 잡혀있어야 됩니다.

4번, 딸리다.

잘 보세요.

이게 헛갈리게 해놨어.

가방에를 먼저 줬단 말이야.

주어가 사실 먼저 오는 게 우리는 더 상식적이라고 볼 텐데

주어를 먼저 줄게요.

지갑이로 갑니다.

지갑이 달라다.

안 되죠?

지갑이 무엇에 달려있다.

무엇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 으로가 눈에 띈단 말이야.

그래서 으로가 맞을 거라고.

이러면 큰일 나.

으로는 없어도 돼요.

사은품으로, 부록으로.

이거는 불필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갑이 가방에 달려있다.

단어장이 그 책에 달려있다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완성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으로가 아닌 예로 가줘야 돼요.

4번이 가장 많이 헛갈렸을 거야.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때가 빠졌다.

다음요.

물이 빠졌다.

뭐가 필요하죠?

어디에서 빠졌는지가 필요하죠.

즉 때가 옷에서 빠졌고 물이 청바지에서 빠졌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주어를 먼저 읽고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질 때 주어 먼저 읽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유용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얼핏 보기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서술어 바로 앞에 있는 거에 현혹되기 쉬운 구조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인데요.

21번 보시면 되는데 2번의 경우 보면 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랑 부사어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한 구절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 살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의미에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라는 게
지금 의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 뜻 자체가 어디에, 그 일정한 곳이
어딘지를 궁금해하는 서술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사어도 요구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5번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헷갈렸을 거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문장 성분에 대해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새 부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